



강사 **김삼환** 목사

## 믿음을 지키는 사람

(창 12:1-3)

1. 건강을 이어가는 사람,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귀하듯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오늘까지 그 믿음을 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믿음의 사람이 이웃을 해롭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회수하십니다. 마치 내 자동차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 면허정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온 세계에 나누어주고 너로 말미암아 세계가 복 받는 것인데 역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내 복과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내가 만대에 복과 상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마 18:32-33**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로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마귀는 모든 사람을 택하여 이웃에게 고통과 아픔과 불행을 가져오는 일에 사용하므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계 21:8).

2.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다 주셨습니다. 땅 한 평 없었으나 동서남북 그리고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창 13:14-15**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식 하나 없었으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창 22: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위대한 조상이 되게 하리라(창 17:4), 위대한 자손, 왕과 지도자가 쏟아져 나오리라(창 17:6), 큰 민족, 큰 국가를 이루리라(창 12:2a),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창 12:2b) 하셨습니다. ‘창대하다’의 형태는 미완료형이므로 창대함, 영광, 권위, 존귀함을 계속 주신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욕하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해를 주면 아브라함이 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같이하여 그를 기뻐하면 아브라함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온갖 저주 아래 있더라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창 12:3).

아브라함은 누구와도 관계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자손에게 메시아의 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손, 혈통은 세계를 살리는 생명이 그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이 구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다 함해도 믿음만은 못한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빌고 빌어야 줄까 말까 하고 오히려 나쁜 것을 주어 인간으로 저주를 받게 하나, 하나님은 구하는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며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받게 됩니다(마 7:15, 요 10:10).

**마 6: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시 37:4**            또 여호와의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3.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멀리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멀리 더 멀리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우르와 하란은 900km, 하란과 가나안은 600km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100배 더 어려운 먼 거리를 오랫동안 이동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약하여 우르로 돌아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모세도 애굽에서 예배드리거나 여기서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할 때 거절하였습니다.

**출 8:28**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출 10:11**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의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출 10:24**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의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그렇게 적당한 곳에서 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축구선수가 가계를 운영하면서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창 12:1, 9). 우르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교인이 많은 것은 거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4. 믿음의 사람도, 복의 사람도 이 세상을 가인의 눈으로 보고 잠시 믿음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은 모든 복이 떠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탕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나 세상을 좋게 보고 세상에 모든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믿음을 떠나갔을 때 믿음도 잃고, 복도 잃고, 삼손과 같이 능력도 떠나갔습니다. 세상이 에덴동산 같으나 그 안에 수많은 독사가 있고, 잔잔한 강 같으나 그 안에 악어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본질입니다. being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부작용이 없고 짐이 되지 않고 나쁜 것이 함께하지 않으나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복은 사울과 같이 근심, 걱정, 미움으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 10:22**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곁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5.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나라가 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순종, 예배의 생활화, 기도의 시간표, 믿음의 사람의 언행과 습관, 의식, 의지, 지성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외과의사가 되려면 의대에 들어가야 하고, 군인이 되려면 군에 입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믿음을 떠날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오고, 아무리 가까운 아내라도 믿음 없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정에 비극이 오는지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넘어서리고 믿음을 빼앗는 이 세상의 무서운 적과 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비축하고 다른 싸움, 다른 염려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딤후 6: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딤후 4:7-8**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음의 사람은 광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 4: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인의 후손은 좋으나 나쁘냐, 잘사느냐 못사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얼마나 더 좋으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질입니다. 환경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과 가정, 몸과 마음이 주식시장과 같고 환율과 같고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눅 7:24).